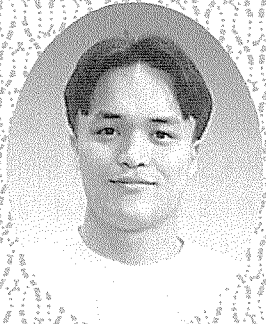


북경 석유대학교, 그리고 나의 꿈



김재영

〈北京 석유대학 경제관리학과 석사과정〉

망 은 사람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이 「석유대학교」라는 것을 듣고 무척 신기해 한다. 北京에서 학교를? 그리고 학교 이름이 석유대학교라고?

내가 다니고 있는 석유대학은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中國石油天然氣總公社(China National Petroleum Cooperation) 산하에 있는 학교이다. 대학 학부학생이 비교적 많은 山東省의 勝利유전에 있는 華東캠퍼스, 그리고 대학원생이 비교적 많은 北京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석유대학교는 중국 석유산업과 관련된 많은 인재들을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학교이며,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석유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학교시설 그리고 교원 대우등에서 중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대학의 수가 1천개가 넘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지정한 16개의 국가 중점대학의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그 학교의 경제관리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한국 학생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경제관리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석유관련 분야의 회사 일을 하다가 경제·경영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자기가 속해 있던 회사의 경제적,

경영적 문제를 공부하며 그 문제에 관한 졸업논문을 쓴다. 그리고 다시 졸업 후에는 그 회사에 복귀한다. 그리고 석유회사의 중간간부 고급간부들도 이 학교의 수업에 단기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진은 예전부터 석유문제를 연구했던 원로교수님들, 석유회사에서 전문경영에 참여했던 전문경영인, 그리고 현대 중국석유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젊은 강사진, 그리고 몇명의 외국인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경제·경영의 기초적인 지식에서 시작하여 석유산업 분야의 경제성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에 사업차 자주 출입을 하시던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막연한 꿈을 가졌던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1989년 대만의 東吳大學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1992년 8월에 한국이 중국과 역사적인 수교를 함으로써 나는 더 많은 꿈을 가지고 그간 정이 들었던 대만을 떠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市에 위치한 흑룡강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남은 대학의 2년을 공부하게 되었다. 중국대륙에서의 생활은 대만에서의 생활보다 더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나는 그들과 부딪치며 중국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실망과 놀라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당혹감, 그리하여 일부분의 대만이 아닌 전체 중국대륙의 모습, 문화와 사고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1993년에 중국 원유 생산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흑룡강성 大慶유전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처음 가보았던 유전에서 석유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석유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중국은 1949년 모택동의 학제개편으로 철강대학, 항공대학, 지질대학 등 각 분야의 산업발전과 전문화를 위해 각 산업별로 전문화 된 특수대학이 있다. 중국에 대학이라 하면 北京大學, 清華大學, 人民大學 등의 명문대학을 떠올리게 되나, 하나의 전문인이 되고

싶은 나는 졸업후 석유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 중국 교수님과 상담을 한후 별 갈등 없이 석유대학교 경제관리학과 석사과정을 선택했다.

많은 보고서에서 예견하듯이, 미래의 초 강대국 중국은 1978년 11期 3中 全人大會에서의 덩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과 1992년 덩소평의 南巡講話로 이어져 진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이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더 이상 미래시장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실제적인 현실시장이며, 우리가 나아갈 밝은 미래의 좋은 협력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세계 5위의 석유 산유국이자 세계 4위의 석유 대 소비국이다. 더우기 중국은 빠른 공업성장을 이루면서 1993년 이후에 석유수출국에서 석유 순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석유 수입국으로 전략한 중국은 국내의 석유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제능력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내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전 탐사의 지질적,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들, 국내 석유개발 탐사를 통한 석유 공급의 코스트가 석유 수입원가를 상회하는점 그리고 계획경제때 이미 부풀어진 방만한 국영기업의 경영상태, 외자도입을 통한 중국 국내의 유전개발과 그 세제문제는 현 중국석유 산업의 문제이자 중국 석유학계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한 석유산업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석유 제품의 수입국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등 한국의 석유 정제설비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듯이, 한국과 중국은 상호 보완과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석유관련 산업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중국에서 해야할 일들은 많은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浬(關係;관계)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은 학연, 지연, 친지, 혹은 친구들을



▲ 지난 5월 1일 노동절때 북경 교외에서

통한 판시를 만든다. 판시가 없으면 될 일도 안되고 안되는 일도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많은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제적 발전과 과거의 계획 경제 시기의 鐵飯碗(철반완, 철통밥그릇, 계획경제 시절의 평생직업을 보장하던 시절을 가리키는 말, 무사안일주의)의 사고가 존재 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또한 중국의 인문과학 학자들도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처럼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유의 일들이 많다.

나는 학생으로서 실제적인 업무경험이 적다. 실제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

다. 하지만 석유대학을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만든, 또 만들 수 있는 판시들, 중국에서 보낸 시간들 속에서 내 나름대로 터득한 중국인들과의 처세술 그리고 아직도 미숙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이해와 중국 석유업계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韓·中 두나라의 석유업계의 진일보된 관계를 위해 또 韓·中 두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